한국문학논총 제64집(2013. 8) 207~234쪽

일본 이양지와 중국 허련순의 소설 비교 연구

- 이양지의 <나비타령>과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중심으로

김 정 웅*

차 례

1. 이양지와 허련순의 생애 비교
2. 두 작품에 등장한 메타포 – '나비' 에 대한 비교
3. 두 작품 속에서의 가정의 파탄과 집 잃은 '나비'들
4. 두 작품 속의 집단적 폭력과 집 잃은 '나비'들
5. 두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인 자리매김

교보문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재일조선인 소설가 이양지의 중편소설 <나비타령>과 중국 조선족 소설가 허련순의 장편소설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 관한 비교문학적 연구이다. 특히 본고는 이양지와 허련순의 디아스포라소설에 나타난 타자의식에 초점을 두고 주류사회에서 소외 당 하고 '한국에로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영원한 이방인들의 공동한 심리적 갈등을 비교하였다.

* 중국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일어일문학과 전임강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양지와 허련순은 거의 같은 시대를 디아스포라적 신분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산 여류작가이다. 이 두 작품에는 모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사는 디아스포라의 애환을 다루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두 작가 모두 명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끈질기게 시도하였으며, 그들의 소설에는 거주국에도 속하지 못하고 모국에서도 자기의 귀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원한 이방인'의 애환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더욱이 '나비'라는 메타포를 동원하여 귀추를 잃고 방황하는 이러한 경계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도 동일성을 보인다.

지금 동아시아에는 디아스포라의 모국에로 역류하는 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역류라는 한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는 이양지의 <나비타령>과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의 등장인물들은 '한국에로 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공동 심리를 드러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심리 발로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러한 심리가 재일조선인과 중국조선족들에게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비교학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주제어 : 이양지, 허련순, 디아스포라, <나비타령>,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1. 이양지와 허련순의 생애 비교

이양지(李良枝, 1955년3월15일~1992년5월22일)[1]는 재일조선인문학[2]

1) 이양지는 그녀의 조선 이름이고 호적에 등록된 일본 이름은 다나카 요시에(田中淑枝)이다. 소학교 시절 즉 이양지가 9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들이 일본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함으로 하여 이양지도 자연히 부모의 국적을 따라 일본국적으로 바뀌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제3세대[3] 여류소설가이며 1992년3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미완성 유작으로 된 장편소설 <돌의 소리(石の聲)>를 포함한 10편의 소설을 남기고 있다. 그녀의 소설작품 중에는 한국 유학시절 서울에서 집필하여 1982년 27살의 나이에 일본의 <군상(群像)>[4]이란 월간문예지에 발표한 그녀의 처녀작 중편소설 <나비타령(ナビ・タリョン)>이 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평가되는 제88회 아쿠타가와상(芥川賞)[5]후보작으로 선정된다. 네 번의 도전 끝에 1988년 이양지는 단편소설 <유희(由熙)>로 제100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자로 당선되면서 자신과 재일조선인문학의 존재를 일본문학계에 널리 알려 재일조선인문학 제3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녀의 문학은 시종일관하게 자신의 귀추를 잃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방황하는 디아스포라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허련순은 1954년에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출생하였고 1980년 연변대학 조문학부를 졸업하고 연길시문화국 전직작가로 오랫동안 임직하면

2)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문학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여러 가지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일문학', '재일코리안문학', '재일한국인 · 조선인문학', '재일조선인문학' 등으로, 한국에서는 '재일교포문학', '재일동포문학', '재일한국인문학', '재일조선인문학' 등으로 부른다. 본고에서는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상용한다.

3) 한반도로부터의 이주라는 시점에서 볼 때, 이양지는 한반도에서 일본에 이주한 이주자의 2세이고, 허련순은 한반도에서 중국에 이주한 이주자의 2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학적 시점에서 볼 때는 이양지와 허련순 모두가 재일조선인문학 제3세대와 중국조선족문학 제3세대에 해당한다.

4) <群像(군상)>은 일본의 강담사(講談社)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문예지이다. 1946년10월에 창간되었다. 군상신인문학상(群像新人文學賞)을 주최하고 있으며 노마문학상(野間文學賞)과 노마문예신인상(野間文芸新人賞)의 수상발표도 진행하고 있다.

5) 원 명칭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상(芥川龍之介賞)이고 일명 아쿠타가와상(芥川賞)으로도 통칭되고 있다. 이 문학상은 순문학을 지향하는 신인들에게 주어지는 문학상으로 일본에서도 가장 유명한 문학 신인상으로서 문학도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1935년에 설립되어 한 해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씩 수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 문학창작에 정력을 쏟았다. 1986년 단편소설 <아내의 고뇌>로 문단에 데뷔한 이후 중단편소설집 『사내 많은 여인』(1991), 『우주의 자궁』(1997), 장편소설 <잃어버린 밤>, <바람꽃>(1996년), <뻐꾸기는 울어도>,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2004년)를 출판했고, 드라마 시나리오 『갈꽃』(10집), 『떠나간 사람들』(20집) 등을 발표, 공연하였다. 허련순의 장편소설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2004년 1년간 월간문예지 『장백산』에 연재했고, 2004년 한국의 인간과자연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2007년 제1회 김학철문학상 대상작으로 당선되었다. 허련순은 중국조선족문학 제3세대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의 하나로 그녀의 소설은 김관웅 교수가 말하다시피 '집을 잃고 집을 찾아 헤매는' 디아스포라의 애환이 아주 제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이양지와 허련순의 간단한 프로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과 중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데뷔한 두 여류소설가에게는 많은 흡사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허련순과 이양지는 한 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 동세대 작가이며, 조선반도에서 일본과 중국에 이주한 조선인 디아스포라 2세이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으로 하여 두 여류작가의 소설은 모두 디아스포라가 주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주국과 모국 사이에서 방황하는 디아스포라의 애환과 경계인으로서의 타자의식을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양지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200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허련순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한국의 연구자들과 중국조선족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양지와 혀연순의 상호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두 작가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는 아주 미진한 상태이다.

이양지의 <나비타령>과 <유희>는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서전적인 요소가 짙은 중편소설로서 디아스포라라는 현실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허련순의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집을 보았을까>는 역시 디아스포라적인 주제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보여준 작품이다. <나비타령>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그리고 <유희>와 <바람꽃>은 서로 대칭되는 작품으로서 전자는 디아스포라적인 주인공이 거주국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한국에 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경계인의 타자의식을 다루고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디아스포라되었던 주인공이 모국인 한국에서 겪는 자신의 아인덴티티를 정립하기 위한 고심과 모국사회에서 받게 되는 소외감과 이방인 형상을 그리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이렇듯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다룬 두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 <유희>와 <바람꽃>에 대한 비교는 다음으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이양지의 <나비타령>과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두 작품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경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한국에 안 가면 죽어버릴 것 같은……'[6] 타자의식의 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갖는 디아스포라적인 의미를 구명할 것이다.

2. 두 작품에 등장한 메타포 – '나비' 에 대한 비교

이양지와 허련순은 거의 같은 시대를 디아스포라적 신분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산 두 여류작가이다. 두 작가의 작품에는 모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사는 디아스포라의 애환을 다루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목을 끄는 것은 두 작가 모두가 명확한 목적과 주제의식을 가지고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끈질기게 시도하였으며 그들의 소설 속에서는 거주국에도 속하지 못하고 모국에서도 자기의 귀추를 찾지 못하고

6) 이양지, <나비타령>, 『由熙』, 도서출판 삼신각, 1989., p.334
허련순,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인간과자연사, 2004., p.2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방황하는 '영원한 이방인'[7]의 애환이 그려져 있으며 더욱이 '나비'라는 메타포를 동원하여 귀추를 읽고 방황하는 이러한 경계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양지의 <나비타령(ナビ・タリョン)>은 1982년 일본에서 발표되고, 1989년 한국의 삼신각 출판사에서 발간된 이양지의 소설집 <유희(由熙)>에 번역 소개되었다. 허련순의 장편소설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중국에서 연재를 마치고 2004년 한국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두 작품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22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 발표되었음에도 '나비'라는 메타포가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사한 디아스포라문학 환경 속에서 동질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과 우연성의 일치일 것이다.

프랑스의 포스터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폴 고갱(1848 ~1903)은 1848년 프랑스 '2월혁명'의 실패로 해외로 망명하는 아버지를 따라 남미에서의 디아스포라의 생활체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디아스포라 체험은 그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우리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가
> 우리들은 대체 누구인가
>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가

폴 고갱의 말처럼 '나는 누구인가?'하는 문제는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동시에 디아스포라 문학의 핵심적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초에 이양지가 일본문단에 두각을 나타냈을 때 이양지 소설주

7) <영원한 이방인>은 한국인 혈통인 미국인 작가 이창래의 장편소설이다. 이창래는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첫 소설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은 첩보 활동에 연루된 한국계 미국인의 아웃사이더 같은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으로 그는 PEN/헤밍위이 상, 아메리칸북상 등 미국의 6개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제의 신선함은 일본문단과 재일조선인 문단에 충격을 주었고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거주국-일본과 모국-한국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문화적 갈등과 타자로서의 소외감을 그린 최초의 재일조선인 작가이다. 중국조선족 문단에서는 '아이덴티티 찾기 문학'이 '뿌리 찾기 문학'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으며 대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하나의 문학사조이다.[8] 특히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조선족의 디아스포라 삶에 대하여 사회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크게 거론되면서 중국조선족 문학의 중요한 주제로 되고 있다. 일본의 재일조선인 문단 보다 조금 늦었지만, 이는 중국에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친 극좌로선에 따른 언론 통제와 무관하지 않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복원과 민족문제의 완화와 함께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1996년), 박옥남의 단편소설 <내 이름은 개똥네>(2008년) 등 다수의 정체성 찾기를 주제로 하는 소설들이 우후죽순 마냥 쏟아져 나왔다. 가히 그중에서도 허련순은 중국조선족문단에 있어서의 '뿌리 찾기 문학'의 기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유럽에서는 흔히 날짐승과 길짐승 사이에서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겪고 있는 박쥐라는 메타포를 통하여 디아스포라민족 혹은 경계인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다.[9] 이 메타포의 원형은 고대 그리스의 이솝우화에서 찾을 수 있다.

> 날짐승과 길짐승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쌍방은 서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패에 대해 짐작할 수 없는 박쥐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언제나 이긴 쪽의 편에 서군 했다. 후에 날짐승들과 길짐승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끝나자 박쥐

8) 오상순, 「조선족 여성작가 허련순의 소설과 당대 남성들의 소설에 나타난 '뿌리 찾기 의식'연구」,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회, 2004, 377쪽.

9) 물론 중국조선족 출신의 재일조선인 문인 김문학도 <중국조선족 대개조론>같은 글에서 중국조선족문화를 박쥐형 문화라고 평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서구 상징부호 계통에서 힌트를 받은 것이라 사료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의 거짓말을 쌍방의 적발에 의해 드러났다. 이리하여 날짐승과 길짐승들은 신용을 지키지 않는 박쥐를 질책하면서 박쥐를 대낮에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징벌했다. 그때로부터 박쥐는 낮에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지내다가 어두운 밤이 되여서야 고독하게 하늘에서 날아다니게 되였다고 한다.[10]

날짐승과 길짐승 사이에서 아이덴티티의 갈등을 겪고 있는 박쥐와 거주국과 모국 사이에서 아이덴티티의 갈등을 겪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게쉬탈트 심리학 이론을 비추어본다면 이질동구(異質同構), 즉 서로 다른 대상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박쥐라는 동물 형상으로 디아스포라의 처지를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일본의 이양지는 '나비'라는 메타포를 인용하여 거주국과 모국 사이에서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민족을 비유했다. 그런데 '나비'는 동서양의 문화상징 부호체계 속에서 이솝우화에서와 같은 아이덴티티의 갈등으로 비극적 운명을 갖게 되였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는 없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나비는 흔히 죽은 사람의 영혼의 환생을 상징하거나 기쁨, 행복을 상징하며, 중국에서 나비는 흔히 부부간에 금실이 좋음을 상징하거나 꿈을 상징하며, 서양에서는 순수한 영혼이나 신의 불을 상징한다.[11] 이로부터 볼 수 있는 바 이양지는 <나비타령>에서 나비라는 이 동물 이미지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나비 메타포를 동원하여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의 혼란상을 비유한 것은 아마도 이양지가 첫 번째이고 허련순이 두 번째일 것이다.

이양지는 <나비타령>에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불행한 가정으로 인기된 정체성의 갈등문제와 제일조선인 2세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겪어야 하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소학교 4학년 때

---

10) <伊索寓言>, 北京燕山出版社, 2002, 42쪽
11)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142-145쪽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부터 장장 10년간에 걸치는 부모들의 이혼소송 갈등 속에서 집에서의 탈출을 통하여 사랑 받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파산된 가정에서의 정신적 해탈을 시도하며 또 일본사회에서의 소외감과 '집단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정체성을 놓고 고민하게 되며 그는 이러한 현실세계에서 도피하고 한국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인 무속무용이라던가 가야금 그리고 판소리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양지는 그의 단편소설 <나비타령>속에서 이 '나비'라는 메타포에 크게 매달리지는 않고 있다. 한국행을 결심하기 직전 심신이 극도로 피로하고 절망에 빠진 그가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할 때 나비에 대한 묘사가 조금 등장할 뿐이다.

> 뚱따뚱따, 뚱따다, 뚱따당 따당-선율을 쫓고 있던 내 눈에 하얀 나비가 비쳤다. 어둠 속에 하얀 나비가 날고 있다. 나비는 확실히 어두운 단층 속을 비상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나비 쪽을 향해 걸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러나 나비는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작게 그 모습을 나타냈다. 눈물의 윤곽이 희미해지자 나비는 훨훨 크게 날아올랐다. 문득 나비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나는 마쓰모또에게 안겨 있었다. 벤치에 앉은 마쓰모또가 두 손으로 내 볼을 감쌌다. 목덜미의 냄새를 맡고서야 겨우 나는 안도한다. 마쓰모또는 조용히 내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
> "선생님, 나비가, 나비가……, 하얀 나비가 저기서 날고 있어요"
>
> 팔을 뻗은 내 손가락 끝은 별 하나도 없는 칠흑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
> 중략……
>
> "난 한국으로 갈 생각이예요"
>
> 중략……
>
> "한국에 안 가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일본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젠 모두가 넌더리가 나 싫어요. 일본은……"12)

위의 '나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칠흑 같은 밤중에 '뚱따뚱따, 뚱따다,

12) 이양지, <나비타령>, 『由熙』, 도서출판 삼신각, 1989., 33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뚱따당, 따당'하는 가야금의 선율 속에 어두운 밤하늘의 단층 속을 나비가 눈앞에서 잠깐 비상하고 환각처럼 사라진다. 여기에서 보아낼 수 있듯이 가야금의 가락 속에서 춤추는 '나비'는 곧바로 한국유학을 통하여 서울에서 가야금을 배우고 판소리와 살풀이춤을 통하여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이양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불투명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양지는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통해 나름대로의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또 음을 통해 역사에 참여하고 조상들이 사랑해 온 음 속에 자신의 존재를 투영해보기도 하면서 당시 부딪치고 있던 많은 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13]고 말할 수 있다. 이양지는 <나에게 있어서의 모국과 일본>이라는 글에서 "<나비타령>이라는 제목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고, 다시 모국에 안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초고를 써낸 것입니다"[14]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소설 속의 주인공인 애자가 갖는 디아스포라로서의 갈등의 여러 가지는 절대 그 개인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비'라는 이 이 메타포는 더 나아가서 귀추를 잃고 난무하는 재일조선인의 군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허련순의 장편소설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그가 1996년도에 발표한 <바람꽃>의 주제적 성향의 계승과 승화로서 민족정체성 탐구에서의 또 하나의 역작이다. 소설의 타이틀이 시사하듯이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라는 장편소설 속에서 '나비'라는 동물형상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허련순은 이 작품 속에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가 끝내는 버려져야만 하는 '나비'란 이름을 가진 강아지와 한국으로 가는 밀항선의 선창에 날아 들어온 '나비'라는 동물 형상을 작품 전체를 통하여 이러한 동물 형상과 귀추를 잃고 방황하는 한국 밀항자들인 세희와 유섭 그리고 쌍희 또 세희의 아들 용이 등 인물형상과 삼

13) 이양지, <나에게 있어서의 모국과 일본>, 『한국논단』, 1990., 220쪽
14) 앞의 글, 223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일체의 구조를 이루도록 그려내고 있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인 세희와 유섭 그리고 쌍희는 모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정의 파탄과 더불어 남의 집에서 자라나게 되며 따라서 세 주인공 모두 가정적 아이덴티티의 갈등을 극심하게 겪어온 인문들이다. 이들의 공통하게 겪어온 가정적 아이덴티티의 갈등은 세희네 집 강아지 '나비'의 운명과도 지극히 통하는 데가 있으며 이들은 구조적으로 서로 이원적 대응관계를 이룬다. 또 이러한 것들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밀항선의 선창 밑에 길 잃고 날아든 '나비'와도 상통한다.

> 배 위에서 무엇인가 작은 물체가 세희의 얼굴에 떨어졌다. 가볍게 선뜩하는 느낌이 차가웠다. 세희는 잠에서 깨여났다. 사실 자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눈만 감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자는 것도 지쳤다.
>
> 무얼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얼굴에 떨어진 물건을 떼어냈다. 몸은 가늘고 둥글고 머리 위에는 끝이 부푼 한 쌍의 다듬이가 있고 몸에는 넓적한 날개가 있고 몸과 날개에 가루 같은 분비물이 덮여 있었다. 그것이 가볍게 파드득거렸다. 생명이 있는 것이었다. 두어 번 날갯짓을 하는 듯 싶더니 금세 조용해졌다.
>
> 나비였다. 나비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나비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을까?15)
>
> 후략……

우의 인용문은 허련순의 장편소설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묘사이다. 선창의 천정 우에 붙어 있다가 거의 질식해 죽어가는, 역시 탈진상태에 빠져 빈사상태에 이른 세희의 얼굴 우에 떨어져 내리는 "나비"가 묘사되어 있다. 선창 우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죽어가는 나비와 선창 안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세희 등 밀항자들은 또 이원대응의 구조적관계를 갖고 있다.

이양지의 <나비타령>과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속

15) 허련순,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인간과자연사, 2004., 325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나비”라는 메타포가 거주국과 모국 사이에서 귀추를 잃고 난무하는 경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양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야금소리에 맞추어 난무하는 동(動)적인 ‘나비’를 묘사하는 것을 통하여 가야금과 판소리 그리고 무속무용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예술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이양지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불투명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허련순은 칠흑 같은 밀항선의 선창 속에 길 잃고 날아든 정(靜)적인 죽어가고 있는 ‘나비’를 그림으로써 나비처럼 귀추를 잃고 한국으로 가는 밀항선 속에서 죽어가는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이양지와 허련순의 이 두 작품에서 동물형상으로서의 나비는 모두 부분적인 상징이기는 하지만 후자에서 전자보다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이 상징 장치를 설정하였고 따라서 그 상징기능이 보다 잘 발휘되고 있다는 점 역시 다르다.

3. 두 작품 속에서의 가정의 파탄과 집 잃은 “나비”들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가정적 아이덴티티는 불가분리적으로 이어져 있다. 바로 이 까닭에 가정의 파탄은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다. 특히 제일조선인 문학 제3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파탄은 그들의 문학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유미리(柳美里)를 들 수 있다. 유미리의 가족 파탄을 주제로 한 그의 중편소설 <가족시네마(家族シネマ)>가 1997년 제116회 아쿠타가와상(芥川賞) 수상작품으로 됨으로써 일본 주류문단의 인정을 받는다. 이양지 문학에 있어서도 가정의 파탄은 그녀의 소설 속에 늘 등장하는 내용들이며 특히 그녀의 중편소설 <나비타령> 속에서 가정의 파탄은 주인공 애자가 집을 뛰쳐나가는 중요한 이유이며 또 그녀가 ‘한국에 가지 않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으면 죽을 것만 같은'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 일본인 비평가[16]는 가정의 파탄은 현대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병폐라고 지적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 디아스포라 민족들에게서 보이고 있는 가정 파탄의 비율은 경이로울 정도로 높으며, 이러한 디아스포라 민족의 높은 비율의 가정 파탄을 단지 현대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병폐로만 해석하기에 무엇인가 부족하다.[17]

<나비타령>에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한국인이 겪는 차별과 부모의 이혼 문제로 상처받는 자식의 아픔, 그리고 모국인 한국에 대한 그리움 등이 서로 어울러져 묘사되고 있다. <나비타령>의 주인공 애자(愛子)는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작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 이양지의 <나비타령>속에서 주인공 애자의 가정이 무슨 원인으로 어떻게 파탄되어 가고 애자는 가정의 파탄 속에서 어떤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무슨 방법으로 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이양지의 부친인 이두호(일본식 이름은 다나카 고)는 1926년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며 15살 나던 해에 돈을 벌러 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다. 일본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이두호는 줄을 잘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병대에게 '죠센징은 때리지 않으면 모르는 족속들이야'라는 말과 함께 얻어맞았다. 이 일을 계기로 이두호는 일본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예의범절을 열심히 익힌다. 17살 나던 해에 이두호는 같은 제주도 출신의 여자와 빈손으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다.

---

16) 일본의 문학평론가 아키야마 슌(秋山駿)은 '<가족시네마>-가족의 파탄이란?-'라는 글에서 유미리의 소설 <가족시네마>에 대해 가족 간의 인연이 희박해지고 있는 시대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족의 의미를 탐구하려고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17) 하야시 고지(林浩治)와 기리도오시 리사쿠(切通理作) 등은 유미리의 <가족시네마>에 대하여 "모종 의미에서는 '재일성(在日性)'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55년 이양지가 태어날 때까지 그녀의 집은 극빈을 면치 못했지만 그녀의 부친인 이두호가 오직 돈벌이에만 열중하여 동경과 야마나시(山梨) 그리고 찌바(千葉)에서 땅을 사들이고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골프장 등을 경영하는 경영자로 되여 50여 억 엔의 재산을 가진 야마나시현(山梨縣)에서도 손꼽는 고액납세자가 되였다. 이두호는 고액납세자라는 이 칭호야말로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패스포트'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일본국민의 풍습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재일조선인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인보다도 더 일본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집도 정원도 일본식으로 자녀교육도 일본무용과 고토(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철저하게 일본화를 시도하였다. 그 목적은 역시 조선인으로부터 탈피하여 철저하게 일본인이 되려는 것이었다. 이양지가 9살을 맞이하던 해에 끝내 이양지의 부모는 일본에 귀화하여 '일본인'이 되어버린다. 그 후 이양지는 당시를 회억하면서 "……부모의 각도로부터 볼 때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보다 모범적인 일본인임을 일본정부에 증명하고 또 맹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귀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 아무런 방조가 되지 않았으며 또 아무런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양지의 어머니인 오영희는 그녀의 아버지 이두호와 같은 제주도 계통의 사람이나, 오오사카(大阪)의 코리안타운에서 태어났으며 지극히 조선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녀는 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한 일본인이 되려고 하는 이두호와는 달리 일본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라면서 조선적인 가치 관념으로 일본의 일사일정들을 판단하고 있었다. 심신 모두가 일본인보다도 일본인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두호와 조선적인 가치 관념으로 일본의 모든 사물을 직시하고 있는 오영희의 가정 생활은 빗나갈 수밖에 없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 결국은 이혼에 이른다. 부부간은 재산 상속권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10년에 걸치는 긴 이혼소송 끝에 이양지의 가정은 어머니가 세 딸을 부양하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철저히 파탄된다. 이러한 이양지의 삶은 소설에 그대로 반영되어, 소설 속의 주인공 애자는 가정의 파탄을 현실로 직면하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빈껍데기인 가족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결국 교토에서 가족 몰래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에서 일할 것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허련순의 장편소설<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주제적 경향에 있어서 1996년도에 발표된 그녀의 장편소설 <바람꽃>과 일맥상통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를 이룩한 소설인데 1990년대 중기에 붐이 일어난 조선족들의 한국 밀항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밀항선에 오른 주인공들인 연변여자 안세희와 송유섭 그리고 왕청 여자 말숙이와 쌍희 등은 모두 사회의 최하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중국사회에서는 약세군체(弱勢群體)에 속하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다. 목숨을 걸고 한국을 가는 밀항선에 오른 이들 모두에게는 '한국에 안 가면 죽어버릴 것 같은' 이유가 있다. 해안경비선에 발각되는 것을 경계하여 용변도 화장실이 없는 밀항선의 선창 밑에서 남녀가 둘러 있는 데도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드러내고 해결해야만 한다. 인간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인격마저도 내동댕이치고 한국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이하와 같이 쓰고 있다.

> 용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지 않을 자유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다. 사람들은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용변을 볼 때면 수풀이나 곡식밭에 들어가는가? 이는 수치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이다. 본능을 억제당할 수 있는 것은 동물뿐이다. 사람들은 동물을 가두기 좋아한다. 동물만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우리 안에서 똥 싸고 오줌을 갈기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동물들도 어쩌면 자기들을 가두어놓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우리에 갇혀서 똥을 싸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용변을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죽은 목숨이나 뭐나 다를까. 하지만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수치를 감수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8)

이상과 같이 세희와 송유섭을 비롯한 주인공들이 인간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인격마저 버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한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등장인물들 속에 공동으로 존재하는 가정의 파탄으로부터 찾고 있다.

인간은 어머니 배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적, 가정적, 인종적, 민족적, 사회적인 아이덴티티 즉 자아동일성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인간은 우선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적 아이덴티티의 갈등을 겪게 된다.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서 등장하는 세희, 송유섭, 쌍희, 용이 등 모든 인물들은 예외 없이 가정의 파탄으로 가정적 아이덴티티의 갈등 속에서 성장해온 인물들이다.

주인공 세희는 “중국 대지를 휩쓸었던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그 이듬해 여름이었다. 신문사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혁명이라는 누명을 쓰고 쌍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할 수 없이 그녀는 송고래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맡겨졌다.”19) 시골에 있는 백부 집에서 그녀는 동네 조무래기들로부터 ‘반동새끼’라고 조롱을 당하고 사촌오빠한테까지 성적 희롱을 당한다. 그 후 아버지가 죽은 후 가장 민감한 사춘기에 세희는 엄마가 아버지의 친구와 한 이불을 덮고 끌어안고 있는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해 16세인 세희는 어머니에게 환멸을 느끼고 이모한테로 가겠다고 자진해 나선다. 이모네 집에서 세희는 이모부를 통해 상실한 부성애를 보상받아 보려한다. 이모부는 살갑게

18) 허련순,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인간과자연사, 2004., 26쪽
19) 앞의 작품, 57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세희를 대해주었지만 결코 세희를 자기 딸처럼 여기지 않았고 또 여길 수도 없었다. 이모부는 필경은 남이었기 때문이다. 세희는 이모부로부터 친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 꿈꾸었고 또 그래서 이모부네 집에서 가정적 아이덴티티를 찾으려 하지만 그 간격이 너무 큼을 실감하게 된다. 그녀는 이모의 아들 진희 앞에서는 언제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실제상에서도 세희는 이모부에게 있어서는 한낱 성적인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미모의 젊은 처녀였을 따름이었다. 바로 세희를 남으로 여겼기에 세희를 육체적으로 범하기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 죄책감으로 이모부는 자살하게 된다. 세희는 이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모네 집에서도 가정적인 아이덴티티를 획득하지 못한다.

가정적 아이덴티티의 방황 속에서 살아온 세희의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의 결혼생활은 모두 파탄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세희의 불안정한 생활 태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혼한 두 남편이 남기고 간 세희의 각성바지 두 아들도 어려서부터 가정적 아인덴티티의 갈등에 시달리면서 자란다.

허련순의 소설 속의 또 다른 등장인물들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송유섭은 소년 시절에 야반도주한 엄마와 술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고아가 되어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가 그 집에서 또 버려지며 커서도 가정적인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쌍희의 부모는 한족이나 그는 다섯 살 때 부모를 잃고 조선인 집에 입양되어 가정적 및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이 소설에서 이들은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갈등으로 방황하는 디아스포라로서의 조선족을 상징하는 인간상이자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가정적, 민족적 나아가 국가적 아이덴티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 두 작품 속의 집단적 폭력[20]과 집 잃은 '나비'들

이양지와 허련순의 두 작품에 공동이 나타나는 것은 주인공들이 주류사회로부터 받는 집단적 폭력이다. 이 장에서는 두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떠한 집단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집단적 폭력은 그들의 한국행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이른바 인간의 행위로서 물리적 폭력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 다룬 작품의 주인공들은 디아스포라 된 존재로서 모국을 떠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생활한다.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이라는 주류사회 속에서 타자로서의 갈등을 겪어야 하고, 중국 조선족들은 문화대혁명이란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계급투쟁'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장치에 의하여 특정한 정치 집단과 갈등을 겪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재일조선인이나 중국조선족이 이민족과 이문화 혹은 '계급투쟁'이라는 특정한 사회·역사적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통을 제공하는 대상을 집단으로 보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폭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실지로 일본에는 아이누(アイヌ)족도 존재하고 류큐(琉球)인 그리고 조선인과 화인(華人)들도 존재하는 다민족국가이다. 하지만 일본은 늘 단일민족국가로 표방하면서 자기 민족 이외의 이방인을 수용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척한다. 이러한 현실을 일본에서는 '이지메(いじめ)'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흔히 '집단 따돌림' 혹은 '왕따'라는 은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이지메는 개인에게 가하는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따돌림이다.[21] 이러한 따돌림은 '우리'나 다른 '개인'에게 가해지는 집단적이자 제도적

20) 윤명현은 처음으로 이양지 문학을 집단적 폭력이란 관점에서 고찰한바 있다. 윤명현,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집단적 폭력」, 『동일어문연구』 19집, 동일어문학회, 2004.

21) 진중권, 『폭력과 상스러움』, 푸른숲, 2002., 20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 폭력으로 한 사회 속에서 조금 이질적인 개인에게 가해질 수도 있고, 다민족 속의 소수민족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 즉 이 이지메라는 것은 '우리'와 차이가 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표출이다.[22]

이양지의 처녀작인 <나비타령>에는 이러한 집단적 폭력이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소설의 주인공인 애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은 이러한 일본사회의 집단적 폭력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애자는 고중을 중퇴하고 2년간 교토에 있는 여관에서 일한다. 아버지와 두 오빠, 어머니와 세 자매로 가족이 분리되어 버린 상황에서 가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숨쉬기조차 힘든 공간이었다. 이러한 숨 막히는 빈껍데기뿐인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자는 교토를 갔지만 그곳에도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본인으로부터의 집단적 폭력에 시달려야만 하였다.

애자가 일하는 교토의 여관에는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오치카라는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는 일본인이 있다. 어느 날 종업원의 식사시간에 손님들이 남긴 밥을 더럽고 걸탐스럽게 먹는 오지카를 향하여 지배인인 야마다(山田)가 "오지카, 저거 조센(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얕보아서 이르는 말) 아냐?"[23]라는 말을 내뱉는다. 야마다는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인물을 곧 재일조선인과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재일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의 의식을 대변한다. 이러한 무형의 폭력에 노출될 것을 두려워한 애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 그리하여 애자는 항상 "들키면 어쩌지, 들키면 여기도 못 있게 된다……"[24]고 생각하며, 이러한 강박감은 자기 자신을 더욱 더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재일조선인'이란 신분상의 비밀이 탄로 나지 않기를 바란 애

22) 윤명현, 「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집단적 폭력」, 『동일어문연구』 19집, 동일어문학회, 2004년, 78쪽
23) 이양지, <나비타령>, 『由熙』, 도서출판 삼신각, 1989년, 296쪽
24) 앞의 작품, 295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의 바람은 순진한 염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는 애자와 여관 직원인 마치에(町枝)와의 대화의 한 단락을 통하여 확인된다.

> "아이짱, 너 저쪽 나라 사람이지?"
> "옛?"
> "응, 아무 것도 아냐"
> ……(중략)
> "마찌에상, 마나님과 사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 ……(중략)
> "신경 쓸 것 없어. 내가 여기를 그만두는 게 좋다고 한 것과는 상관없어. 저 젊은 마나님은 다만 순종 잘하고 싸구려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좋은 거야"[25]

사실 여주인과 종업원들은 애자가 이 여관에 들어오던 날 이미 재일 조선인이라는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관에서 일하는 2년 동안 주위의 일본인들이 자신의 실체를 눈치 채지 않았을까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그러한 걱정이 애초부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음을 안 애자는 자신의 생활 자체가 이미 폭력 속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애자는 2년이란 시간 동안 야마다가 경영하는 와후여관(和風旅館)이라는 일본인 집단의 동일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여왔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개인-타자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상 애자는 여관에 더 머물 수가 없게 되며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런 애자는 와후여관의 안주인을 찾아가 일을 그만둘 것을 전한다. 그러자 여관 안주인은

> "넌 은혜도 모르니?"
> "조센징이지만 꾹 참고 일을 시켜 온 거야!"
> ……(중략)

25) 앞의 작품, 300~30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조센징은 원래 은혜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는 거야, 할 말이 없어"

라는 말로 모역적인 언사를 던진다. 일본인 경영자인 와후여관의 입장에서 보면 애자라는 재일조선인은 일본인과 같은 집단 속에 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큰 결손 요소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마이너스가 되는 결격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넓은 아량으로 같은 집단 속에 받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애자는 귀화한 재일조선인 가정이라는 자신의 집단 속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소수민족이라는 사실로 인해 주류사회로부터 받는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그녀는 일본 사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자신은 '영원한 이방인'이며, '타자'로 밖에 인식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주류사회의 소외와 배척 그리고 집단적 폭력 속에서 애자는 자기가 속할 수 있는 원초적인 집단인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 존재하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집단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폭력은 애자와 같은 소외 받는 '이방인'들에게 생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소외당한 개인은 위축감이 극대화되어 결국에는 생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자살을 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1970년 10월 6일 와세대대학 정문 앞에서 분신자살한 양정명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정명은 일본 사회의 집단적 폭력으로부터 견디다 못해 분신자살을 결심하며 유서에 "어릴 때부터, 철이 들고 나서부터 주위 일본인들의 차가운 눈초리는 나에게 적의와 증오에 멍든 인격을 형성시켰다. (……)부모는 고심 끝에 이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일본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 평등은 그저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26]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집단적 폭력을 경험한 주인공 애자는 일본과 일본인이라는 집단에 대해 공포감을 갖게 된다.

---

26)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06., 109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니혼징(日本人)에게 피살당한다. 그런 환각이 시작된 것은 그날부터였다. 만원 전철을 탔을 때는 한 역씩 폼에 내려 상처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전차를 탔다. 홍수와 같은 사람의 무리에 밀리며 역 층계를 내려갔다. 여기에서 피살되어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객사하는 것이다. 겨우 무사히 내려갈 수 있다고 해도 다시 층계를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뒤에서 달려 올라오는 인파. 내가 층계를 하나 오르는 순간, 아래 있는 누군가가 내 아킬레스 건을 끊는다. 나는 니혼징들에게 깔려 질식당한다. 어두운 영화관도 공포였다. 좌석에서 불쑥 나와 있는 후두부(後頭部)가 날붙이에 찔려 머리가 잘린다고 느껴져 제대로 영화도 보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온다.[27]

이렇게 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던 집단에 대한 공포가 끊임없이 밀려와 '생활'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현실 속의 집단적 폭력 앞에서 주인공 애자는 처음에는 일시적이며 소극적인 도피를 선택한다. 일본에도 가야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선생의 집으로 가야금을 배우러 다닌다. 하지만 애자는 가야금을 배우는 순간만큼은 일본을 잊고 모국을 생각 할 수 있어 타자로서의 소외된 현실을 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이 일상생활까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함과 아울러 더욱더 적극적인 탈출을 시도하여 결국에는 한국에 갈 것을 결심한다.

일본에 있어서의 주류사회의 집단적 폭력은 이른바 애자가 "한국으로 가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일본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더는 복잡해서 싫어요, 일본은"라고 말하는 집적적인 동기가 된다. 일본에서 한국 선생한테서 거문고를 배우는 소극적인 도피만으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애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다. 이때 애자에게 한국행은 불안이 따를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삶의 탈출구였으며 이 순간 그녀에게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 된다. 즉, 애자로 대표되는 재일조선인들의 한국행의 동기에는 문화적

27) 이양지, <나비타령>, 『由熙』, 도서출판 삼신각, 1989., 312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뿌리 찾기라는 정신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이란 '나비'들이 한국이란 '꽃밭'으로 날아가려고 한 데에는 정신적인 자유의 추구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란 '나비'들이 한국이라는 '꽃밭'으로 날아가려는 동기는 같은 면도 있으면서도 다른 점도 많다. 그것은 중국에서 조선족의 처지는 일본에서의 조선인들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었다. 중국조선족은 중국에 건너온 이후 백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중국의 동북변강을 개척한 주역이었으며, 중국 근현대사의 반침략전쟁과 국공내전 과정에서 그 어느 민족보다도 많은 피를 흘리고 커다란 공을 세웠다. 이런 까닭에 재일조선인들과는 달리 중국에서 조선족은 중국 공민이라는 신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재일조선인들에 월등한 평등을 누려왔었다. 물론 1959년의 민족정풍이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8.2, 8.4'과 같은 사건들에서 조선족들이 정치적, 물리적 폭력을 당한적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조선족은 재일조선인들과 달리 국민신분의 공백으로 인한 아이덴티티의 갈등은 별로 겪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허련순의 <바람꽃>이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서는 다수민족으로부터 가해지는 집단적 폭력은 묘사되지 않았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조선족 사회에서 '한국바람'이 거세게 일게 된 데는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는 정신적 동기 외에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물질적 동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즉 중국조선족의 '코리안 드림'에는 한국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경제적인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허련순의 <바람꽃>이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서는 석연하게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5. 두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인 자리매김

이양지는 그녀의 처녀작인 <나비타령>에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불행한 가정문제와 제일조선인 2세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겪어야만 하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다루었다. 주인공 애자는 가정의 파탄과 집에서 탈출한 후 일본사회에서 겪게 되는 일본인으로부터의 집단적 폭력을 통하여, 왜 자신은 일본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나는 왜 차별을 당하는가 등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역사성을 깨닫게 되며, 민족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야말로 바로 스스로의 정신적 주체성과도 직결되는, 존재에 있어서의 중심적 과제임을 절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 관념적 세계에서만 조국과 만나고 있었던 이양지에게 구체적이며 상징적인 존재로서 가야금이 나타난다. 이양지에게 있어서의 한국행은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기 위한 10년간의 긴 여행이었다.

허련순은 인텔리로서의 사회적 민족적 자각을 가지고 중국조선족의 삶의 현실에 눈길을 돌리고 조선족의 디아스포라적인 실존적 고통을 진실하게 재현하는 민족적 사실주의에 확고하게 입각하여 세련된 언어와 기법으로 소설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여류작가이다. 허련순의 장편소설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전형적인 디아스포라문학이며 디아스포라로서의 중국조선족의 실존상황을 그리고 있다.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1996년도에 발표된 <바람꽃>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 경향의 연장이면서도 동시에 승화이기도 하다.

두 작가는 스토리의 사실주의적인 재현 속에 '나비'라는 메타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재일조선인과 중국조선인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깊은 사색을 보여주었다. 고향을 상실하여 방황하고 방랑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있어서 아이덴티티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끈질긴 물음이다. 많은 토박이 다수자들은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않는다. 그러나 소수자로서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다. 재일조선인 소설가 이양지의 단편소설 <나비타령>과 중국조선족 소설가 허련순의 장편소설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나의 육체적, 정신적 고향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끈질긴 물음의결과이며,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 근대 이후 인간 소외의 비극성을 탐구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양지의 <나비타령>은 일본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문학에서 소수자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아이덴티티의 갈등을 가장 일찍이 다룬 중편소설로 이미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학에서 선구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정치적 요인으로 중국조선족 문학에서 잃어버렸던 디아스포라 문학의 주제를 되찾아 그것을 끈질기게 천착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조선족 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평가가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일본어로 창작된 이양지의 <나비타령>은 일본 독서계와 주류 문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한글로 창작된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중국조선족 문단과 한국 독서계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중국 독서계와 중국 주류 문단에는 전혀 영향을 일으킬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실 허련순 소설이 주제적인 심각성이나 예술적 표현의 수준에서 중국어로 창작하는 조선족 작가 김인순의 작품에 못지않으나 중국 주류 문단에서나 중국 독서계에서 김인순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허련순 소설의 한글로 창작되었다는 언어적 조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런 까닭에 허련순의 상기 소설들은 중국의 최고 수준의 문학상으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조선족 공동체가 해체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허련순과 같이 한글로 창작하는 작가들이 조선족 공동체의 보전과 민족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끼친 공헌은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을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작품집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06.
이양지, <나비타령>,『由熙』, 도서출판 삼신각, 1989.
이양지, <나에게 있어서의 모국과 일본>,『한국논단』, 1990.
李良枝、<由熙／ナビ・タリョン>, 講談社文芸文庫, 1997.
허련순,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인간과자연사, 2004.
허련순, <바람꽃>, 연변인민출판사, 2011.

연구논저

김호웅・조성일・김관웅,『중국조선족문학통사』(하권), 연변인민출판사, 2012.
오상순,「조선족 여성작가 허련순의 소설과 당대 남성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뿌리 찾기 의식'연구」,『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윤명현,「이양지 문학에 나타난 집단적 폭력」,『동일어문연구』19집, 동일어문학회, 2004.
장사선,「재일 한민족 소설에서의 폭력」,『현대소설연구』4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진중권,『폭력과 상스러움』, 푸른숲, 200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와타나베 나오키,「관계의 불안 속에서 헤매는 '삶' -이양지 소설의 작품세계-」,『일본연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06.
顧偉良,「創造的世界, 小説への道—乱舞するナビ・李良枝(前篇)」、『弘前学院短期大学紀要』35집, 弘前学院大学, 1999.
<伊索寓言>, 北京燕山出版社, 20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Contrast Novels Between Lee Yangji and Heo Yeonsun

- Focus on "Ta Lyeong of Butterfly" by Lee Yangji and "Who Saw the Home of Butterfly" -

jin-zhengxiong

This paper contrasts between "Ta Lyeong of Butterfly" by Lee Yangji and "Who Saw the Home of Butterf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ciousness of alien in diaspora novels of Lee Yangji Heo Yeonsun. Also this paper contrasts the psychology dissension of the alien in mainstream society.

Lee Yangji and Heo Yeonsun are the female novelist in Japan and China who also are playing the role of diaspora. Two novels have a common point that describe the diaspora of overseas ethnic Koreans. What is more, two novelist both have the definite awareness of subject and a trial of identity of nation which both describe the sorrows of eternity alien. Moreover, two novels mobilize the metaphor of butterfly which symbolize a marginal man.

There is a diaspora boom in East Asia. The characters in the "Ta Lyeong of Butterfly" and "Who saw the Home of Butterfly" have the common in "the dream of Korea".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cause of the different psychology of diaspora.

Key Words : Lee Yangji, Heo Yeonsun, diaspora, "Ta Lyeong of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Butterfly", "Who Saw the Home of Butterfly"

▌논문접수 : 2013년 6월 30일
▌심사완료 : 2013년 7월 20일
▌게재확정 : 2013년 8월 5일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